

석사학위논문

제주 현악의 발전과  
변천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Historical Change of String Music in Jeju

지도교수 김 인 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바이올린전공

김 태 근

2009년 1월

# 제주 현악의 발전과 변천사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김 인 규

김 태 근

이 논문을 연주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2월

김태근의 연주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년 12월

## 국 문 요 약

제주의 현악역사는 열악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연구 대상 또한 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현악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제주의 음악 분야 중 현악의 역사를 중심으로 발간한 논문이나 음악자료 및 문헌자료는 불충분 하였다.

본 논문은 제주현악의 발전과 변천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의 현악역사를 정립하고자 하였고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현악을 이끌어온 제주실내악단과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제주 서양음악의 발전은 관악으로 시작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보통학교 관악대등 관악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관악대가 애월보통학교이다. 강계돈, 김국배 등의 인물이 이 시기의 관악대, 교악대를 이끌며 활동하였다.

한국전쟁이후에는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가 조직되었고, 탐라합창단 등 민간 차원의 음악활동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한국관악대 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가 발족되었다. 이로 인해 관악의 영역이 확대 되었고, 합창단과 교회 음악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였다.

전통적으로 관악의 뿌리가 깊은 제주에서 현악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제주 현악의 발전은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김인규는 현악 전공자로서 제주에 부임하였고, 그의 열정으로 비전공자들에게 현악을 교육시켰다. 1984년에는 순수 민간 예술단체인 제주실내악단이 창단되었다. 이것은 제주 최초의 현악실내악단이었다. 현악 환경이 전무했던 제주에서 현악실내악은 현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1987년에는 이선문(전,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1997년 작고)교수에 의해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다. 제주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은 제주현악 발달에 있어 또 다른 성과였다.

1989년에는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다. 장홍용(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의 노력으로 창단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은 제주현악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1년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의 신설을 바탕으로 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의 활동이 성인 연주자들의 현악 연주 활동에 발전을 가져 왔다면, 1990년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중·고등 학생의 현악 연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또 하나의 음악적 환경의 변화는 1994년에 제주한라대학에 생활음악과가 신설되고, 1996년에는 제주관광대학에 음악예술과가 신설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제주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현악 인구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으로써의 교육과 함께 취미생활 또는 교양활동으로써 교육이 가능해 졌다고 하겠다.

현재 제주의 현악은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여러 연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하면 아직도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주현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며, 더 많은 자료가 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은 제주의 원로음악가들과의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제주현악의 역사를 연구하였고 그 중심에 있는 제주대학교와 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본 논문이 이후 제주의 현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국문 요약	i
표 목 차	v
그림목차	v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II. 본론	3
1. 제주의 서양음악사 변천과정	3
1) 일제강점기의 음악활동	3
(1) 일제 강점기의 보통학교의 관악활동	3
(2) 애월보통학교 관악대와 강계돈	4
2) 광복이후 한국전쟁시기의 음악활동	4
(1) 관악대와 선무공작대	4
(2) 제주 음악인 김국배	5
3) 한국전쟁 이후의 음악활동	5
(1) 한국전쟁중의 음악활동	5
(2) 제 1훈련소 군악대와 길버트 소령	6
(3) 한국전쟁후의 음악활동	8
4) 1970년대의 음악활동	9
(1) 도내 합창단의 창단과 음악 경연대회	9
(2) 교회 음악활동	9
2. 제주 현악의 발전 과정	10
1) 한국 현악의 계보	10

(1) 한국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홍난파	10
(2) 연악원 창시자 안병소	11
2) 1980년대 이전의 제주현악	13
(1) 1980년대 이전의 현악교육	13
(2) 1980년대 이전의 현악연주 공연	14
3) 1980년대 제주현악	15
(1)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신설	15
(2) 제주실내악단	18
(3) 제주시립교향악단	20
4) 1990년대 제주현악	22
(1)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과 활동	22
(2) 전문대학 음악과 신설	24
5) 2000년대 제주현악	25
(1) 다양한 현악관련 연주단체 창단 및 활동	25
(2) 현악교육 활성화	25
3. 제주현악의 활동 현황	26
1)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현악졸업생 배출현황	26
2) 제주현악의 활동	27
(1) 오케스트라 단체	27
(2) 청소년 단체	29
(3) 앙상블 단체	31
Ⅲ. 결론	34
1. 종합분석	34
2. 결론	36
<참 고 문 헌>	38
<ABSTRACT>	40

## <표 목 차>

<표-1> 일제시대 관악대가 있던 학교 -----	4
<표-2> 1953년 합동 연주 기록 -----	8
<표-3> 1980년대 이전의 현악 연주 공연 -----	15
<표-4> 1980~1990년대 제주실내악단 주요활동-----	19
<표-5> 1980~1990년대 제주시립교향악단 주요활동 -----	21
<표-6> 1990년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주요활동 -----	23
<표-7>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현악졸업생 배출현황 -----	26

## <그 립 목 차>

<그림-1> 군·관·민 친선 연주회(대정초등학교) 연주모습 -----	6
<그림-2> 길버트소령 지휘법 지도모습 -----	7
<그림-3> 홍난파 연주사진 -----	11
<그림-4> 홍난파가 사용하던 바이올린 -----	11
<그림-5> 한국 현악계의 계보 -----	12
<그림-6> 연악원 창시자 안병소 -----	13
<그림-7> 김인규 바이올린 독주회 -----	15
<그림-8> 제1회 교수음악회중 피아노트리오 -----	16
<그림-9> 제주대학교 졸업식 연주모습 -----	17
<그림-10> 제주대학교 종합대학교 승격축하식 연주모습 -----	17
<그림-11> 제주실내악단 창단연주회 팜플렛 -----	18
<그림-12> 제주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 故이선문 -----	2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역사를 기록하며 조명하는 일은 과거에서 이어진 현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와 관련된 억지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 공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역사의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면 역사의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으로써 국내외에서 공인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현악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음악 분야 중 현악의 역사를 중심으로 발간한 논문이나 음악자료 및 문헌자료는 불충분하다. 그러다보니 제주현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추측에 의한 잘못된 지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주현악의 발전과 변천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의 현악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며, 제주현악의 발전과 가능성을 모색해 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본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이후부터 2008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현악의 발전과정, 현재 제주 현악연주자들의 활동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현악의 발전이 있기까지 모태(母胎)가 된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창설을 중심으로 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활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주현악의 발전 모색을 위한 고찰을 할 것이다.

제주현악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립하는 과정으로는 현존하는 제주 원로음악가들, 제주에서 활동 중인 연주자들의 인터뷰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참고문헌은 언론보도자료, 기타보고서, 음악잡지, 역사 관련 도서자료의 근거로 살펴보았다.

제주현악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제주의 서양음악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현악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었고, 그 이전은 학교나 군의 관악대가 위주가 되었으며, 1970년대가 되어서야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따라서 제주현악 발전의 밑거름이 된 제주음악의 발전 과정을 시대 순으로 조사하였고,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현악 활동을 조사하였다.

## II. 본 론

### 1. 제주의 서양음악사 변천 과정

제주음악의 역사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많은 음악인이 제주에 피난옴으로써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당시 도내 음악의 형태는 일본 군가 일색이었고 애국가도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랜사인 가락에 맞춰 불렀다. 국민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새나라의 노래 공부, 새나라의 노래집 등 부종휴, 고봉식 선생에 의해 엮어져 나왔으며, 이것도 외국 가요에 우리말 가사를 붙였을 정도이다.

1946년 본도 초유의 제주중학교 15인조의 교악대가 김국배에 의해 발대되었는데 이 악대는 제주의 음악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1948년 3월경, 제주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광복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음악행사였다. 당시 국민학교 합창단도 출연을 했는데, 지휘 선생님이 합창단 앞에서 지휘를 하게 되니 앞에 앉아 있는 청중들은 지휘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수준이 첫 걸음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1) 일제강점기의 음악활동

##### (1) 일제 강점기의 보통학교의 관악활동

제주관악대의 활동은 몇몇 보통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취미신장이나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 되었다.

<표-1> 일제시대 관악대가 있던 학교<sup>1)</sup>

설립 별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월	직원		계	학 급 수	아동수		
				일본인	한국인			남	여	계
공립	애월보통학교	애월면	1923.9	2	4	6	6	376	53	429
공립	성산포서보통학교	성산면	1923.9	4	3	7	6	375	53	405
공립	한림서보통학교	한림면	1923.9	3	4	7	7	408	88	196
공립	신창보통학교	한림면	1938.4	1	1	2	2	135	6	141
사립	하도보통학교	구좌면	1923.4				4			
공립	외도보통학교	제주읍	1939.5				4			

(2) 애월 보통학교 관악대와 강계돈

제주도의 보통학교 관악대중 가장 활발히 했던 애월보통학교의 관악대는 12인조의 편성으로 각종 행사에 참가하였다. 주요 연주곡목은 일본군가, 신호나팔용 신호곡, 한국민요, 군인 사망 시 장송곡 등이었으나, 대부분 행진곡풍의 일본 군가였다. 지도교사는 강계돈(康季敦)이었는데, 그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있었다. 강계돈은 흥남파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음악가였지만,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제주농업고등학교 교감의 직책으로 교육에 힘썼다.<sup>2)</sup> 그러나 그가 현악 교육을 한 내용에 대한 자료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2) 광복이후 한국전쟁시기의 음악활동

(1) 관악대와 선무공작대

1946년 12월 1일 제주초급중학교가 설립되면서 동시에 관악대가 창설되었다. 이 관악대는 제주읍을 중심으로 갖가지 의식행사와 선무공작대로서 활동했다. 1949년 2월 1일에 발족한 선무공작대는 산으로 들어가 무장한 사람들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선무가 등을 부르며 제주도 전역을 순회하였다. 당시 선무공작은 군·관·민의 필연사업이었기에 제주초급중학교의 선무공작활동을 진작시키기

1)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지, 1982. p 411-419

2)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5/200605100030.html>

위해 군보도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1947년에는 동척회사(東拓會社)에 사원들로 구성된 직장관악대가 창설되었고, 제주농업중학교 관악대는 1949년에 창설되었다.

## (2) 제주 음악인 김국배

목포출생으로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였다. 당시 평양 숭실학교는 음악의 최고 명문학교였기에 그가 음악적으로 뛰어남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학교를 마친 후 한국교향악단의 효시(嚆矢)인 경성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담당하는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천부적이었다고 한다. 1939년 3월에 제주여자중학교에 음악교사로 임명되고 1946년 제주도 최초로 제주중학교의 15인조 교악대가 발대되었다. 그리고 1948년 3월경, 제주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음악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광복 이후 처음 제주도에서 열린 서양 음악 행사였다.<sup>3)</sup>

## 3) 한국전쟁 이후의 음악활동

### (1) 한국전쟁중의 음악활동

이 시기의 음악 활동은 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민들과 함께 입도했던 음악인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고, 그들 중에는 계정식, 이성재, 이성삼, 변훈, 박재훈, 김금환, 고희준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학교 및 교회와 육군 훈련소 군악대에서 활동하였으며, 제주 지역 음악의 뿌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초반, 계속되어진 혼란한 사회적 여건은 관악으로 이어진 음악활동을 더욱 필요로 했다. 제주중학교<sup>4)</sup> 관악대는 확대된 편성으로 1954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고, 제주농업고등학교<sup>5)</sup> 관악대는 대원다수가 학도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당시 관악대 활동은 침체되었다.

1952년 5월 제1훈련소가 주최한 전도 학생음악경연대회가 제주남초등학교 강

3) 강문철, 제주음악의 개척자 김국배. 삶과 문화, 2002년9월 p60

4) 1950년 학제개편으로 제주초급중학교에서 개명

5) 1950년 학제개편으로 제주농업중학교에서 개명

당에서 열렸고, 이성삼은 피난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합창단을 조직하였다. 또한 이성재가 제주중학교와 신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김금환이 제주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음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용묵과 박재훈 등도 이 시기에 많은 음악 활동을 하였다.

오현고등학교에서는 문충지도부 주최의 음악경연대회가 열려서 학생들의 음악 활동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 (2) 제 1훈련소 군악대와 길버트 소령

1951년 3월 21일 모슬포에 제 1훈련소가 창설되었고, 여기에 군악대와 군예대가 조직되었다. 이때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제주도에 공연차 왔던 악극단원, 피난 온 연예인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피난민들 중 종교인들도 많았는데 이 중 구세군 후생학원고적대가 활동하였고, 한국 공군의 미군사고문관이던 딘 헤스(Dean Hess)대령에 의해 제주도에 공수된 900여 명의 전쟁고아를 수용한 한국보육원<sup>6)</sup>에 소규모 관악대가 창설되었다.

제 1훈련소의 군악대장 강봉원 대위를 비롯하여 여대영 등 뛰어난 기량을

<그림-1> 군·관·민 친선 연주회(대정초등학교) 연주모습



6) 원장/황은순,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임시 수용됨



가진 대원들이 있었다. 군악대의 의욕적인 활동은 제주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음악과 교수였던 찰스 길버트(Charles E. Gilbert) 소령이 제주도 C.A.C.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제주중학교와 제주농업고등학교의 교악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후에도 길버트 소령은 열성적으로 학교 악대를 지원했으며 오현고등학교의 고봉식, 한국보육원의 한경화, 제주중학교의 이성재 등과 함께 지휘 지도법을 연구하였다. 이에 힘입은 오현고등학교는 1951년에 40인조 악대를 창설하여 고봉식의 지도로 운영되었다.<sup>7)</sup>

<그림-2> 길버트소령 지휘법 지도모습



※출처 : 오현고등학교 음악관 자료

그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꽃피운 제주도의 관악활동을 미국의 음악잡지 ‘The School Musician’과 ‘The Baton’에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제주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체류했는데, 그의 고마움을 기리고자 오현고등학교는 신축 음악관(1953년 7월 22일 낙성)을 길버트음악관(Gilbert Music Hall), 한국보육원에서는 신축 강당을 길버트관(Gilbert Hall)이라 이름지었다.

그가 주도한 음악활동 중 1952년 12월 20일, 제주도청(현재 제주시청) 청사준공식에서 그의 지휘로 연합악대<제1 훈련소 군악대, 한국보육원, 제주중, 제주농

7) 강문철, 「제주음협회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삶과 문화』 6, 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고, 오현고 관악대>반주에 의한 제주여고와 신성여고 합창단의 할렐루야 공연은 제주에서는 최초의 대규모 음악공연이었다. 그리고 그가 1953년 9월 1일, 제주도를 떠나기 전 8월 20일에 관덕정 광장에서 송별음악회를 성대히 마련하였다.

<표-2> 1953년 합동 연주 기록

공연일시	주관	행사(공연)명	장 소	출연단체
1952. 12. 16	제주도	산업전람회 개관 및 도청 청사낙성	제주도청	군악대 및 읍내관악대 제주여고, 신성여고합창단
1953. 1. 14	삼양리 학생회	삼양부락 및 군경위안 음악회	삼양국민학교	오현고, 제주중관악대
1953. 1. 15	오현중학교	해군 제3병원 위문연주	해군병동	오현고, 제주중관악대
1953. 4.3-4.6	강병대(强兵隊)	제1훈련소군악대와 오현고합동연습	모슬포제1훈련소	제1훈련소 군악대 오현고 관악대
1953. 6.19	강병대(强兵隊)	제2회 군관민 친선운동대회	모슬포제1훈련소	제1훈련소 군악대 오현고 관악대
1953. 7.1-7.4	강병대(强兵隊)	군관민 합동순회음악회	제주,한림,모슬포, 서귀포,성산포	군악대 및 읍내관악대 제주여고합창단
1953. 8.20	제주도	길버트소령 환송음악회	관덕정광장	읍내관악대, 제주여고 신성여고 합창단
1953. 8.21	함덕리학생회	리민위안의 밤	함덕국민학교	오현고,제주중관악대
1953. 12.22	강병대(强兵隊)	강병대 보육대원위안 음악회	모슬포 보육대극장	오현고관악대, 제주여고합창단
1953. 12.28	兵事區	본도 출신 3군 합동영령 봉송식	제주읍	읍내 관악대 총출연

### (3) 한국전쟁후의 음악활동

이 시기의 제주도 음악활동은 학교와 군대 주도를 벗어난 민간 차원의 음악활동으로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펼친 약동기라고 볼 수 있다.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가 조직되었으며, 성인으로 구성된 탐라합창단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1963년과 1964년 두 차례에 걸쳐 안익태가 초청 애국가의 가창 지도 및 합창 연주를 하였다. 이 때 안익태의 지휘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중의 ‘할렐루야’, 김국배가 편곡한 ‘오돌또기’ 등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 4) 1970년대의 음악활동

##### (1) 도내 합창단의 창단과 음악 경연대회

1973년에는 한국관악대 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가 발족되어 관악 영역의 확대를 꾀하면서 제주제일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제주농업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등의 교악대가 발대를 보게 되었다. 또한 관악중심의 음악활동에서 보다 다양한 장르의 활동으로 확대된다. 안익태선생의 탐라합창단 활동이 기반이 되어 많은 합창단이 창단되었고, 각종 합창제, 음악제 등이 개최되었다.

이 시기에 창단된 합창단은 YMCA어머니합창단, 돌체·칸도합창단, KBS어린이합창단, MBC어린이합창단, YMCA하모니중창단, 비바체중창단, 한라합창단이 있다.

이 단체들은 한라문화제 음악제, 전도 학생연합예술제, 전도 소년소녀합창제, 주말 음악감상회 등에서 연주하였고, 새마을 노래경연대회, 전도학생 음악경연대회, 밝고 맑은 노래 부르기 대회, 직장대항 중창경연대회, 전도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와 도외에서의 여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에 입상하였다. 또한 1971년 제1회 ‘전국 건전 가요 경연대회’에 참가한 YMCA하모니중창단이 2위, YMCA합창단이 장려상을 받았고, YMCA어머니합창단이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3위 1회, 4위 2회를 획득하였다. 관악부문에서의 입상은 더욱 우수하였는데, 서귀중교악대(지휘 이봉주)가 진주개천예술제에서 연 3승을 하였고, 동 대회에 제주여고교악대(지휘 고경화)가 참가하여 최고상을 받았다.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한 전국고등학교 관악대 합주경연대회(1976)에서 오현고교악대(지휘 박창표)가 2위를 획득함으로써 개천예술제에서의 십 수회에 걸친 최고상의 관록을 재 입증하기도 했다.

##### (2) 교회 음악활동

이시기의 교회 음악은 교회안에서 머물러 있던 것을 탈피하여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행사가 제주영락교회의 ‘임마누엘의 밤’을 들 수 있다. 이 행사를 이끌어간 이들로는 송정언과 김광식이 있다. 또한 제주서부교회 성가대(지휘 좌문철)는 칸타타 전곡을 최초로 연주하기도 하

였다.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는 1970년대 음악을 관악 중심에서 다양한 음악의 발전을 가져 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제주 현악의 발전 과정

### 1) 한국 현악의 계보

제주 현악의 변천사를 알아보기 전 한국 현악의 계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주의 현악 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인물이 김인규(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바이올리니스트)라 할 수 있는데, 그는 한국 현악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안병소의 제자 양해엽에게 사사 받았다.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원광대학교 교수와 전주시립교향악단 악장, 부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1981년 제주대학교에 처음 음악교육과가 신설되면서 부임한 김인규교수는 당시 현악의 불모지인 제주에 후진양성을 위한 혼신의 교육 열정을 바쳐왔다. 그는 한국현악의 4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홍난파, 안병소, 양해엽, 김인규 계보로 이어진다. 제주에서는 그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많은 연주자들과 단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1) 한국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홍난파

한국 근대 음악의 상징이자 많은 업적을 남긴 홍난파는 선교사로부터 서양 음악의 기초를 배웠고 조선 정악 전습소에서 성악과 기악을 전공하였으며 김인식으로부터 서양 음악 이론을 배웠다. 그 후 일본 및 미국 유학을 통하여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했고, 실력을 쌓았다. 1925년 한국 최초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으며, 1926년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원에 편입하면서 도쿄교향악단(지금의 NHK교향악단)의 제 1바이올린 연주자로 입단했다. 1929년 졸업 후 귀국하여 홍성유, 이영세 등과 난파트리오라는 한국 최초의 바이올린 3중주단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그림-3> 홍난파 연주사진



<그림-4> 홍난파가 사용하던 바이올린



홍난파의 이름 앞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최초’라는 단어도 그중 하나이다.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 최초의 음악 평론가, 최초의 음악 잡지 발행인, 최초의 방송관현악단 지휘자, 최초의 실내악단 창시자 겸 실내악 연주자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연주의 수준을 전문 영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연주, 작곡뿐만 아니라 음악 출판, 음반, 방송 음악, 음악 교육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 음악의 선구자’ 라는 최대의 찬사를 받았다.<sup>8)</sup>

#### (2) 연악원 창시자 안병소

홍난파의 계보를 잇는 사람 중 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안병소(1908-1974)이다. 그는 어려서 홍난파에게 바이올린을 배웠고, 독일에 유학하여 베를린 음악대학 바이올린과를 졸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이페츠를 사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 현악교육의 효시(嚆矢)라 할수 있는 연악원을 창시하여 전희봉, 정봉렬, 김창환, 원경수, 양해엽, 김찬영, 백운창, 정경화, 강동석 등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 한국 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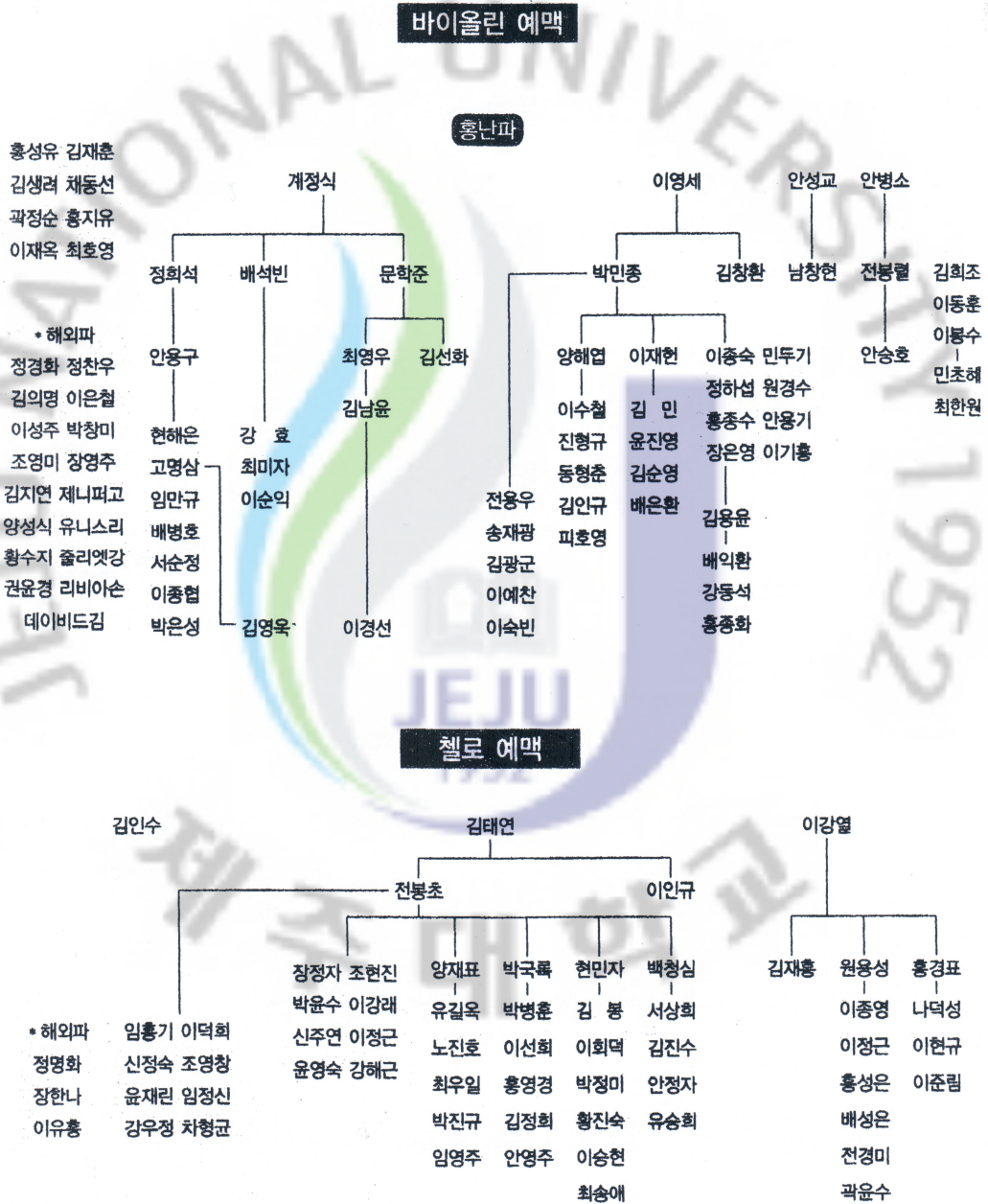
8)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약편), 두리미디어, 2006년, p73

9) 중앙일보 1979. 3. 10

<그림-5> 한국 현악계의 계보

★ 자료 출처 : 한국일보 1996년 1월 10일 수요일자 (제14806호)

[ 한국 현악계의 계보 ]





안병소는 광복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1946년 고려음악협회 연구부장, 1948년 고려교향악단 지휘자, 1950년 대한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51년 국방부 정훈음악부장 한국교향악단 창립단장 겸 지휘자, 1955년 한국연주가협회 위원장, 1956년 한국음악가협회 최고위원, 1961년 한국음악가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그림-6> 연악원 창시자 안병소<sup>10)</sup>



## 2) 1980년대 이전의 제주현악

### (1) 1980년대 이전의 현악교육

제주는 전통적으로 관악의 뿌리가 깊다. 하지만 현악은 1981년 제주대학교에 음악교육과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자료와 인터뷰에 의하면 1940년대 강계돈(康季敦)과 김국배(金國培)가 있었는데, 그들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있었다. 강계돈은 흥남파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음악가였지만,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제주농업고등학교 교감을 했다. 김국배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경성교향악단에서 단원으로

10)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adongmh/1Qss/144>

활동하다 제주로 내려와 제주여자중학교 음악교사로 있었다. 또한 송실전문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음대에서 수학한 바이올리니스트 계정식(桂貞植)이 한국전쟁 때 제주로 피난 와서 잠시 음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계돈, 김국배, 계정식의 현악 교육과 활동에 대한 자료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악활동보다는 뮤지컬, 오페라, 악극 형식의 창작 공연을 하거나 합창과 관악중심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제주의 현악은 여전히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 (2) 1980년대 이전의 현악 연주 공연

1980년대 이전의 현악 연주 공연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제주도에 결성된 현악연주단체는 전혀 없었고 연주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현악연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관악대 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와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초청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을 왔던 기록이 있다.

제주의 첫 현악공연은 1967년 9월 신성여자고등학교 주관의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로 이루어졌다. 연주는 시민회관에서 열렸고,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당히 새롭고 신선한 공연으로 보여진다. 프로그램으로는, 임정은의 지휘로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Rosamunde',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의 교향곡 제92번 'Oxford', 이창우 협연의 하이든(Franz Joseph Haydn) 첼로협주곡 D장조가 연주되었고, 고기봉의 지휘로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의 개선행진곡을 합창으로 연주하였다.<sup>11)</sup> 이 공연을 계기로 1968년 9월 제주여자중고등학교에서도 서울보성여자중고등학교 현악합주단을 초청하여 시민회관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간 현악 연주는 제주도에 볼 수 없었다. 1977년 7월이 되어서야 한국관악대 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 주최로 부산 Fine Art 실내악단 초청 공연과 1978년 11월 김선주 교수의 지휘로 서울청소년교향악단의 초청 공연이 있었다.<sup>12)</sup>

11) 김상미,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논문, 2003, p 24

12) 이선문, 「제주도 관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 1984, p 41

<표-3> 1980년대 이전의 현악 연주 공연

공연일시	주관	단체	장소
1967. 9	제주신성여자고등학교	서울중앙여자고등학교오케스트라	시민회관
1968. 9.11-12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서울보성여자중고등학교현악합주단	시민회관
1977. 7.1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	부산 Fine Art 실내악단	시민회관
1978. 11.10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	서울청소년교향악단	시민회관

3) 1980년대 제주현악

(1)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신설

1981년 음악교육과가 창설되면서 제주 음악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음악교육과 창설과 함께 부임한 김인규(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바이올리니스트)<sup>13)</sup>는 1981년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제5회 김인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으며, 당시 현악기의 소리를 잘 알지 못했던 대중들에게 바이올린

<그림-7> 김인규 바이올린 독주회



13) 한국 현악의 큰 발전을 가져온 안병소의 제자 양혜엽에게 사사를 받았고, 1981년 제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제주에 현악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계기가 되었다.



솔로 연주뿐만 아니라 피아노트리오등 여러 음악회를 개최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갔다. 현악에 대한 기초적인 환경이 전혀 없던 제주에 현악 전공의 교수가 부임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전통적인 관악과 함께 현악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림-8> 제1회 교수음악회중 피아노트리오



김인규 교수는 바이올린 전공학생들을 처음으로 선발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바이올린을 직접 접해본 것이 대부분 처음이었다. 81학번 현악전공학생은 작곡과 피아노전공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바이올린을 잡는 법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김인규 교수의 일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는 1982년 2월, 제주대학교 졸업식에서 나타나게 된다. 제주대학오케스트라에 의해 애국가가 연주된 것이다. 이날 제주시내 중, 고교 선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기위해 제주대학교에 대거 구경 오는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결성된 최초의 관현악단 공연기록으로 남는다.

<그림-9> 1982년 2월, 제주대학교 졸업식 연주모습



<그림-10> 1982년, 제주대학교 종합대학교 승격축하식 연주모습



그 후 3년여 만에 열매를 맺어 1984년 7월 제주실내악단을 창단하고 두 달 뒤에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김인규 교수는 제주에 현악의 꽃을 피우리라 결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이후 현악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노력은 제주의 기악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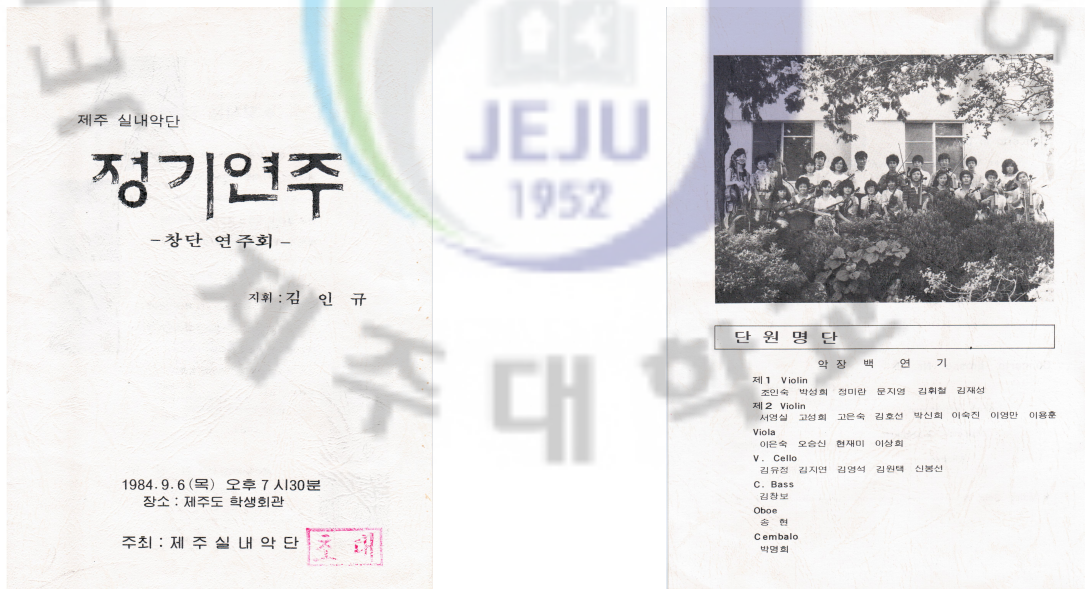
(2) 제주실내악단(현,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김인규는 3년간의 노력 끝에 1984년 7월 순수 민간 예술단체인 제주실내악단을 창단하였다. 창단 당시만 해도 제주실내악단의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제주에 현악 인구가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튜닝이 안 되어 직접 음정을 잡고 연습할 장소가 없어 병원, 유치원 등에서 연습해야 했다.<sup>14)</sup> 이러한 노력 끝에 1984년 9월 창단 연주회를 가지게 된다.

제주실내악단의 창단연주회는 현악 환경이 전무했던 제주에 활력을 불어넣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변변한 현악연주조차 보기 힘들었던 제주에서 최초의 현악실내악이 탄생된 것이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은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에 발판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순수 민간예술단체인 제주실내악단이 순조로운 길만을 걸은 것은 아니다. 창단연주회 후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지만, 후원회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1989년 정기연주회 이후 4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제 11회 정기연주회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림-11> 제주실내악단 창단연주회 팸플릿



14) 홍경희,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삶과 문화 06년12월, p53



최초의 민간후원단체로 창단된 제주실내악단은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했으며, 1984년 7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후 2004년 10월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를 거쳐 2008년 4월 39회 정기연주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주실내악단은 음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양음악의 활성화와 전문연주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2002년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로 개명했다.

제주실내악은 제주 지역의 최초 현악실내악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연주를 통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통있는 단체라 할 수 있다.

<표-4>1980~1990년대 제주실내악단 주요활동

공연일시	활동 및 공연명	비고
1984. 7	제주실내악단 창단	
1984. 9	창단연주회	제주도 학생회관
1985. 4	제2회 정기연주회	
1985. 9	제3회 정기연주회	
1986. 4	제4회 정기연주회	
1986.10	제5회 정기연주회	서울 신포니에타와 자매결연
1987. 4	제6회 정기연주회	
1987. 9	제7회 정기연주회	
1988. 4	제8회 정기연주회	
1988. 8	Summer Music Festival	
1988. 9	제9회 정기연주회	
1989. 3	제10회 정기연주회	
1993. 6	제11회 정기연주회	
1993. 8	제주신라호텔 초청공연	
1993.11	제12회 정기연주회	
1994. 3	제13회 정기연주회	
1994. 7	모차르트 협주곡의 밤	
1994. 9	제14회 정기연주회	
1995. 3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1995. 5	탐라합창제 특별출연	
1995. 6	제15회 정기연주회	
1995. 8	민족가곡의 대향연 출연	광복50주년기념
1995. 9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1996. 4	제16회 정기연주회	
1996.10	한라문화제 출연	
1996.12	제17회 정기연주회	
1997. 7	제18회 정기연주회	

1998. 4	제19회 정기연주회	
1998. 9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1998.12	제20회 정기연주회	
1999. 3	제21회 정기연주회	협연: f1김승연
1999. 5	도내 중·고등학교 방문연주	
1999. 7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1999. 9	聖 음악의 밤	합창: 동광성당성가대
1999.10.1	제22회 정기연주회	협연: pf부지연, Vn강윤선
1999.10.3	광주 순회연주회	광주 문예회관
1999.10.4	대전 순회연주회	대전 엑스포아트홀
1999.12.1	제주음악인의 밤	협연: V.C김철호,sop장신애,pf오신희

(3) 제주시립교향악단(현,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의 모체는 1982년 창단된 단이다. 탐라관악합주 이후 제주시립 합주단으로 새롭게 창단된 후 지휘자 이선문(전,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1997년 작고)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으로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된다.

창단될 당시 제주는 관악 위주의 음악에서 다양한 음악의 관심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 있었고, 특히 교향악단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악 파트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에 현악부전공 과정이 있음으로써 현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취미로 현악을 배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음악적 환경은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창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림-12> 제주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 故이선문



초창기의 제주시립교향악단은 80명의 정원이 있었으나, 낮은 임금체계 등의 이유로 제주 출신 이외의 단원들은 잠시 머물러 가는 곳으로 생각하여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악파트의 단원들은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교육을 받은 단원이나, 취미로 악기를 배운 단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15)</sup>

초창기의 제주 현악의 환경에 비교하여, 점차 현악 전공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의 현악전공자들의 졸업생 배출로 음악적인 재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초창기의 힘들었던 과정과 달리 좀 더 풍부해진 음악적인 환경을 밑거름으로 제주시립교향악단은 점차 안정되고 발전을 거듭하였다. 또한 1997년 이선문의 별세 후 1998년 이동호(현,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가 2대 지휘자로 선정 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표-5>1980~1990년대 제주시립교향악단 주요활동

공연일시	연주회명	공연장소
1987. 4. 6	신춘음악회	시민회관
1987. 9. 3	제주시립교향악단제1회 정기연주회	시민회관
1987. 10. 2	한라문화제 음악제	시민회관
1988. 3. 21	제주시립교향악단제 2회 정기연주회	시민회관
1988. 8. 25	제주시립교향악단제 3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88. 8. 27	올림픽성화 기차의전	제주국제공항
1988. 12.19	제주시립교향악단제 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89. 10.14	제 28회 한라문화제음악제	문예회관 대극장
1989. 10.15	제주시립교향악단제 5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89. 12.22	청소년을 위한크리스마스 음악축제	문예회관 대극장
1990. 2. 24	1990 교향악축제	예술의 전당음악당
1990. 3. 24	제주시립교향악단제 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0. 9. 21	제주시립교향악단제 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0.12. 14	청소년을 위한 겨울음악제	문예회관 대극장
1990.12. 15	청소년을 위한 겨울음악제	서귀포시민회관(서귀포시청초청)
1991. 4. 26	제주시립교향악단제 8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1. 9. 30	여름음악축제	서귀포 갈호텔(KBS 초청)
1991. 9. 30	제주시립교향악단 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1.10. 28	모차르트서거200주년기념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1992. 2. 22	1992 교향악축제	예술의 전당음악당
1992. 3. 24	제주시립교향악단 10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2. 6. 2	청소년을 위한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1992. 9. 29	제주시립교향악단제 11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2.10. 17	해변음악제	탐동 야외무대

15) 이영만, 「제주 음악문화의 발전에 관한 고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논문, 1999, p 19

1993. 2. 25	제14대 대통령취임 경축공연	문예회관 대극장
1993. 9. 1	제12회 정기연주회 시제실시 38주년	문예회관 대극장
1993. 10.19	탐동야외무대	탐동야외무대
1994. 2. 26	'94 교향악축제	예술의 전당음악당
1994. 3. 15	제13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4. 6.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1994. 9. 1	제1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4. 10. 1	한라문화제 음악제	탐동광장이외무대
1994. 12.23	제주문화원 개인축하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5. 3. 24	제15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5. 3. 28	해변공연장 개관축하음악회	해변공연장
1995. 9. 1	제1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5. 8. 15	광복50 대 음악회	해변공연장
1995. 10.31	동경교민방문 위문연주회	동경도 족립구 서신정 문화홀
1996. 4. 13	'96 교향악축제 참가	예술의 전당콘서트홀
1996. 4. 18	제1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6. 6. 21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1996. 7. 1	해변축제 개막연주회(도제 50주년 기념)	해변공연장
1996. 9. 2	제18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6. 12.13	제1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7. 5. 22	제20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7. 9. 2	제21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7. 10. 8	아 태 영화제 개막연주회	해변공연장
1997. 12.23	송년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2. 10	신춘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3. 26	제22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4. 2	4 3 50주년 진혼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4. 9	'98 교향악축제 참가	예술의 전당콘서트홀
1998. 7. 8	제23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9.25 ~ 9.28	오페라 춘회(음악협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10.27	제24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12. 4	故 이선문 지휘자 추모음악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8. 12.22	제25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9. 3. 10	제26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9. 4. 8	제27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9. 5. 29	용연달맞이 선상음악회	용연포구
1999.8.31 ~ 9.2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문예회관 대극장
1999. 7. 20	해변축제 개막연주	해변공연장
1999. 9. 30	제29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9. 11.11	제30회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999. 12.31	2000년 대 음악축제	한라체육관

#### 4) 1990년대 제주현악

##### (1)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과 활동

1990년대 제주현악의 획기적인 일은 1989년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과 활동이다. 장홍용(제주대학교 음악학과)교수의 노력으로 창단된 제주청소년오케



스트라의 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음악 교육과 공연 문화의 발전’이다.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제주현악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의 신설과 함께 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의 활동이 성인 연주자들의 현악 연주 활동에 발전을 가져 왔다면, 1990년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중·고등학생의 현악연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은 제주음악의 발전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현악의 발전이 늦은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현악을 접해온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현악을 접하고 풍부한 연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창단됨으로써 제주현악 뿐 아니라 제주음악 인구에 풍부한 재원을 배출해 내는 인재 육성소가 생겼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의 현악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가고 있다는 것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6>1990년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주요활동

공연일시	공연명	장소
1989.03.2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식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89.05.27	청소년 음악회 출연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89.09.16	제1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89.10.21	서귀포 초청 연주회	서귀포 시민회관
1989.12.25	청소년을 위한 `89 정탄축하 음악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0.03.26	제2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0.05.12	`90 제주 어린이 노래잔치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0.08.09~14	제1회 대한민국청소년 교향악여름음악제	제주 국제 유스텔
1990.08.13	제3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1.02.22	제4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1.05.25	`91 제주 어린이 노래잔치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1.12.01	제5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2.03.29	제6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2.05.30	`92 제주 어린이 노래잔치	제주도 시민회관
1992.12.28	`92 송년 음악회	서귀포 시민회관
1992.12.29	`92 송년 음악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3.09.02	제7회 정기 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3.09.03	서귀포 초청 연주회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1993.12.14	금호현악4중주단 초청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4.01.28	제8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1994.04.11	가곡의 밤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1994.08.02	제9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4.12.28	'94 송년 가족음악회	동아 생명 문화센터
1995.02.28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5.09.11	제11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5.12.26	'95 송년음악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5.12.29	서귀포 초청연주회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1996.08.24	한일친선교환연주회	일본 나가사키市 공회당
1996.08.27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6.11.27	'96 협주곡의 밤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6.12.20	'96 송년 가족음악회	제주도 KAL호텔
1997.05.03	청소년음악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7.05.10	학생회관 개관기념음악회	제주시 학생회관 대극장
1997.08.23	한일청소년교환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7.09.27	신천지미술관공연장 개관기념연주회	신천지 미술관공연장
1997.11.24	'97 협주곡의 밤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8.02.28	제13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8.05.06	'98청소년음악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8.08.02	제14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8.11.07	서울 플루티스트 앙상블 초청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9.01.28	제15회 정기연주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9.05.03	'99청소년음악회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1999.08.10	극동·아세아방송 합창단 음악회 출연	서귀포 KAL호텔
1999.11.28	박물관 야외음악회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999.12.06	성탄추리점등축하음악회출연	신제주로타리

## (2) 전문대학 음악과 신설

1994년에 제주한라대학에 생활음악과(2년과정)가 신설되고, 1996년에는 제주관광대학에 음악예술과(2년과정)가 신설되었다.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에는 1994년 43명이 입학하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96년에는 제주관광대학에 음악예술과가 개설되었다.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와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의 개설은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밖에 없던 제주음악 환경에 또 다른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졸업생들의 음악 활동도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현악에 있어서도 제주한라대학과, 제주관광대학에 현악전공이 생김으로써 많은 현악인들이 배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 2000년대 제주현악

### (1) 다양한 현악관련 연주단체 창단 및 활동

2000년대 제주현악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면 다양하고 많은 현악과 관련된 연주단체들의 창단과 활동이 있다.

제주의 현악관련단체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 오던 제주실내악단과 제주시립교향악단 이외에는 현악관련단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에 와서 1989년 창단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와 1996년에 창단된 제주피아노트리오가 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많은 활동을 이끌어 왔다. 또한 1997년 7월, 23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청소년 단체인 소리샘앙상블(1999년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로 개명)이 창단되기도 했다.

2000년대부터 많은 현악관련단체들이 창단되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8월 리더 문정숙을 중심으로 제주현악사중주단이 창단되었고, 2002년 2월 제주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는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현악기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콘탁앙상블과 2001년 7월 한라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다. 2002년 제주실내악단이 서양음악의 활성화와 전문 연주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로 개명했으며, 2002년 3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의 부설단체인 제주리틀실내악단(2006년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로 개명), 2002년 6월 제주신포니에타와 자매단체인 주니어신포니에타, 2002년 9월 베가트리오, 2003년 5월 기독교 연주단체인 영의소리앙상블, 2007년 12월 슬로이스츠등 많은 현악관련단체들이 창단되고 활동하였다.

2000년대 많은 현악관련 연주단체들의 창단과 활동은 그들의 연주활동에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현악이 짧은 시간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 (2) 현악교육 활성화

2000년대 현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학원교육을 통한 현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교육개혁과제」로 선정, 1996년 「방과후교육 활성화

방안」 시행된 후 2006년 3월 「방과후학교」로 통합, 전면 시행되었다. 방과후학교의 목적은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에 있는데 현악교육 역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부터 제주도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106개 초등학교 중 36개 학교, 첼로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이 2개 학교가 있다.<sup>16)</sup>

음악학원을 통한 현악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에서의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음악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게 되고, 그 곳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음악 및 현악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3. 제주 현악의 활동 현황

#### 1)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현악졸업생 배출현황

1981년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신설이후 많은 현악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1985년 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08년 24회 졸업생까지 바이올린 69명, 비올라 22명, 첼로 44명, 콘트라베이스 4명이 배출되었다.

<표-7>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현악졸업생 배출현황

졸업연도	졸업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1985	1	3		1	
1986	2	3	1	1	
1987	3	2		1	
1988	4		1		
1989	5	5		2	
1990	6	2		1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2007.10월 기준 자료임>

1991	7	2	1	1	
1992	8	1	2	2	1
1993	9	2	1	2	
1994	10	2		2	
1995	11	5		3	
1996	12	2	1	4	1
1997	13	2	2	3	
1998	14	4	3	1	
1999	15	5		2	
2000	16	1	2	2	
2001	17	3		1	1
2002	18	5	1	3	
2003	19	5	1	4	1
2004	20	1	1		
2005	21	2	1	2	
2006	22	4	2	2	
2007	23	7		2	
2008	24	1	2	2	

## 2) 제주현악의 활동

1980년대 제주실내악단과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주에는 많은 현악과 관련된 단체들이 창단되어 활동 중에 있다. 2008년 현재 활동 중인 현악관련단체를 오케스트라단체, 청소년단체, 앙상블단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오케스트라 단체

#### ①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전 제주실내악단)

최초의 민간후원단체로 창단된 제주실내악단은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했으며, 음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양음악의 활성화와 전문연주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2002년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로 개명했다.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간 국내외 유명연주자들을 초청 협연 연주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했으며, 젊은 연주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을 마련하고 연주능력향상의 기회를 줌으로써 세계화를 향해서 나아갈 기틀을 마련했다. 연간 2회의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타 지역 교류음악회, 낙후지역 방문 연주, 기타 기획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공연 중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작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레퍼토리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05년 7월에는 사이판 북마리아나 관광청 초청으로 “미국 228주년 독립기념 음악회”에서 고전음악과 제주민요로 현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2004년과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 주최 우수단체 초청 기획공연을 가졌다. 25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김인규교수 지휘아래 순수합과 열정이 가득한 50여명의 단원들이 “제주바람의 사랑을 전합니다”라는 메인 테마를 내걸고 도내 민간단체로는 가장 연주활동이 활발한 악단이다.<sup>17)</sup>

## ②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전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은 도내 음악인들의 노력으로 1985년 이선문 초대 지휘자와 단원 50명으로 구성된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창단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에는 교향악단으로 승격하여 1987년 9월에 제주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가 열렸다. 1998년 제2대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부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부임한 이래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각종 공연 프로그램(창작오페라 「백록담」, 교향악축제, 제주국제관악제, 용연선상음악회 등)과 제주민요 채보 및 녹음, 전국 최초로 시행된 학교 교가 CD제작 보급을 통해 제주 음악계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인해 제주시립교향악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sup>18)</sup>

17) 자료출처 :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홍보자료

18) 제주도립예술단 홈페이지 (<http://www.artjeju.or.kr>)

### ③ 한라챔버오케스트라

한라챔버오케스트라는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의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제주의 문화 관광도시 선도에 앞장서며 도내의 잉여 음악인을 수용하여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육을 선도한다는 취지아래 2001년 7월 결성되었다.

그동안 한라챔버오케스트라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제주 송년콘서트 연주, 2001 제주오페라단과 리콜레토, 2007 서울오페라양상블과 리콜레토 아시아버전 뉴오페라, 제주국립박물관 갤러리음악회, 매년 장애인을 위한 자선 송년음악회 등 도내 음악 행사를 주관 및 출연하였으며 및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꾸준히 활동하는 도내 최초 민간 성인오케스트라이다.<sup>19)</sup>

### ④ 제주신포니에타

제주신포니에타는 2002년 6월에 창단된 음악전문 연주단체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이 땅에 널리 알리자는 “하늘과 바다를 울리는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형삼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양상블에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장르를 살려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및 리빙콘서트 등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중인 강동석, 조영창, 김지연, 양성원, M.I.K, 이승일, 에릭섬스키, 파스칼드봐이용 등을 초청하여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초청연주회도 해마다 열고 있다.<sup>20)</sup>

## (2) 청소년 단체

### ①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1989년 청소년에 대한 음악교육과 공연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2003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 법인 인가를 받았고, 2005년에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전문예술법인으로

19)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caf.or.kr>)

20)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caf.or.kr>)



지정을 받았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 동안 120여회의 공연활동을 펼쳤으며, 매년 방학마다 음악캠프를 개최하고 년 4회씩 청소년 연주자의 기량향상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며, 우수단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음악의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악감독 장홍용 교수를 중심으로 정기연습과, 시창·청음·음악감상 등 단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활동도 전개하고 있다.<sup>21)</sup>

### ②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는 1997년 7월에 제주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23명의 현악기 단원인 ‘소리샘앙상블’로 출발하여 현재의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는 흥정도 지휘자를 중심으로 6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미래의 유능한 음악인과 지도자를 육성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으로써 YMCA의 기본 이념인 ‘보다 좋은 세상 건설’을 이룩해 가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교류연주회, 각종 국·내외 행사에 참여, 사랑과 희망의 축제, 공항 자선 음악회, 성이시돌 양로원 방문연주회, 일본 오사카 초청연주회, 세계 섬문화 축제 개막연주회, 음악캠프 등 활발한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YMCA가 추구하는 이념목표에 디딤돌로 성장하고 있다.<sup>22)</sup>

### ③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2002년 3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부설단체로서 청소년들의 음악적인 성장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김인규교수에 의해 제주리틀 실내악단으로 창단되었다.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악단은 성장하며 발전하였으며, 2006년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로 개명하였다.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는 2003년 9월 제 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

21)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www.jeuphil.com>

22)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www.jejuyouth.com>

기연주회를 가지고 있으며, 글라라 수녀원 방문연주회, 우도 방문연주회, 삼양, 표선, 성읍초등학교 방문연주회 등 지역사회에 음악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 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제주·진주 교류음악회를 통해 타 지역과의 음악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는 음악감독 김인규교수와 2대 상임지휘자 임대홍의 지도아래 다양한 레퍼토리 및 단원간의 화합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하계음악캠프, 방문연주회, 작은 음악회 및 기타 기획연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23)</sup>

#### ④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는 제주신포니에타의 자매단체로 음악으로 꿈을 키워가는 도내 초·중·고 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다.

김형삼 지휘자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지도 선생님의 차별화된 음악교육방법과 열성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자모회의 관심으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협동심과 창의력을 기르며 음악을 통한 사회 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7회의 정기연주회, 작은 음악회, 초청연주회, 년 2회의 음악캠프를 실시하여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강동석의 비루투오조’ ‘김지연과 MIK 앙상블’ 연주회에 찬조 출연하였고 미국출신 에릭섬스키의 지휘로 연주를 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과 한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제주시립교향악단과 합동연주를 했으며 여름축제의 일환으로 탐동에서 “한밤의 세레나데” 라는 주제를 갖고 3회의 특별무대를 가졌다.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는 음악을 사랑하는 작은 음악인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이 성장 속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노력하고 있다.<sup>24)</sup>

---

23) 제주제네스오케스트라 홍보자료

24)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홍보자료

### (3) 앙상블 단체

#### ① 제주피아노트리오

제주피아노트리오는 소외된 제주 지역의 실내악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고급의 클래식 음악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고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6년 창단되었다. 리더 고채희(Violin), 이소혜(Cello), 차승조(Piano)가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 제주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고,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주최의 신인음악회,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와 제주도 문화진흥원 기획 '그림·시 그리고 음악과의 만남전'에서 연주 활동을 하였다. 불우이웃을 위한 4회의 위문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한국공항공단 주최의 '제주공항 작은 음악회' 등 도민을 위한 연주회를 주로 하고 있다.<sup>25)</sup>

#### ② 제주현악사중주

제주 최초의 현악사중주 단체로 실내악을 대중에게 보다 많이 보급하고 실내악의 활성화를 목표로 2000년 8월에 창단된 단체이다.

리더 문정숙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 음악인 4명으로 구성된 제주현악사중주단은 2002년 5월 23일에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탐라문화제 음악제 및 제주 실내악축제, 서귀포 여름 음악축제에 초청받아 연주하였고 교도소 위문연주 및 음악의 사각지대를 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하여 제주 음악인과 애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내악 단체이다.

#### ③ 베가트리오

제주도 실내악의 저변확대와 아름다운 선율로 음악을 만들어가고자 2002년 9월 강스텔라(Piano), 장선경(Violin) 그리고 윤현경(Cello) 이 세 명의 젊은 여성 연주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베가트리오는 교환·방문 연주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도내에서 왕성한 연주를 펼치고 있으며, 좀 더 대중적인 음악으로 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연주단체이다. 두 차례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이미 도내 음악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였고 매 연주

25) 『제주문화예술현황』 (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마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 F. Martin과 C. Debussy 피아노트리오곡을 제주 초연함으로써 진정한 연주자의 자세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④ 영의소리앙상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영의소리앙상블은 연주선교와 봉사연주를 목적으로 2003년 5월에 창단되었다. 리더 김태근(Violin)을 중심으로 15명의 음악전공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클래식과 교회음악을 다양하게 연주하고 있다. 70여회의 교회, 보육원, 교도소, 초등학교 방문연주 등 음악을 통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연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5차례의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로 선교와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 ⑤ 제주솔로이스츠

제주솔로이스츠는 제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연주자들이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 소규모 Chamber Music을 연주하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장선경(Violin), 이경선(Violin), 윤정혜(Viola) 그리고 예지영(Cello)이 활동하고 있으며, 차별화 되고 수준높은 개인기량을 갖춘 제주 연주자들의 모임인 만큼 도민들에게 정통 클래식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고, Crossover Music이나 Jazz같은 좀 더 폭넓은 레퍼토리를 연주함으로써 클래식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큰 연주 공간 뿐 아니라 어디서나 연주가 가능한 실내악의 장점을 살려 더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 III. 결 론

#### 1. 종합분석

본 논문은 제주의 서양 음악 발달과정을 통해 현악 발달과정을 조사, 연구하였다.

첫째, 제주 서양음악의 발전 과정

제주의 서양음악은 관악으로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보통학교 관악대등 관악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관악대가 애월보통학교이다. 12인조 편성의 이 관악대의 지도교사인 강계돈도 제주의 음악사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광복 후에도 여전히 관악대의 활동이 많았는데 선무공작대등의 군·관·민 사업의 일환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

김국배는 제주중학교에 15인조 교악대를 발대하였고, 광복이후 최초의 제주도 서양음악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주 서양음악은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많은 음악인이 피난음으로써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전쟁 중에는 피난 온 음악인들이 많은 음악 활동을 하였으며, 군악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군악대 등의 활동은 제주음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길버트소령은 열성적으로 학교 악대를 지원함으로써 제주 음악활동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가 조직되었고, 탐라합창단 등 민간차원의 음악활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안익태의 ‘메시아’, 김국배가 편곡한 ‘오돌또기’등이 연주되면서 제주 음악활동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한국관악대 지도자협회 제주도지부가 발족되었다. 이로 인해 관악의 영역이 확대 되었고, 합창단과 교회 음악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였다.



## 둘째, 제주현악의 발전과정

전통적으로 관악의 뿌리가 깊은 제주에서 현악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자료에 의하면 강계돈, 김국배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였다고 하나 그들의 음악 활동은 뮤지컬, 오페라, 악극 형식의 창작 공연을 하거나, 합창과 관악 중심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현악의 발전은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인규는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였고, 그의 열정으로 비전공자들에게 현악을 교육시켰다. 1982년 제주대학교 졸업식에는 제주도에서 결성된 최초의 관현악단 공연기록을 남겼다.

1984년에는 순수 민간 예술단체인 제주실내악단이 창단되었다. 이것은 제주 최초의 현악실내악이었다. 현악 환경이 전무했던 제주에서 현악실내악은 현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 하겠다.

1987년에는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었다. 제주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은 제주 현악 발달에 있어 또 다른 성과였다.

1990년대 제주현악의 획기적인 일은 1989년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과 활동이다. 장홍용(제주대학교 음악학과)교수의 노력으로 창단된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은 제주현악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의 신설과 함께 제주실내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의 활동이 성인 연주자들의 현악 연주 활동에 발전을 가져 왔다면, 1990년대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중·고등학생의 현악 연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1990년대 또 하나의 음악적 환경의 변화는 1994년에 제주한라대학에 생활음악과(2년과정)가 신설되고, 1996년에는 제주관광대학에 음악예술과(2년과정)가 신설된 것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졸업생들도 음악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현악에 있어서도 제주한라대학과 제주관광대학에 현악전공이 생김으로써 많은 현악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현악 인구의 대중



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으로써의 교육과 함께 취미생활 또는 교양활동으로써 교육이 가능해 졌다고 하겠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전 제주실내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전 제주시립교향악단),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신포니에타가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주니어신포니에타등 여러 청소년단체와 제주피아노트리오, 제주현악사중주, 베가트리오, 영의소리앙상블, 제주솔로이스츠 등 앙상블단체가 많은 음악활동을 펴고 있다.

## 2. 결론

제주는 열악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악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짧은 제주의 서양음악 역사와 그중에서도 가장 늦은 현악의 역사로 인해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연구 대상 또한 좁은 것이 사실이다.

서양 음악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많은 단체들과 인물들이 제주음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는 현악이 발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제주현악의 본격적인 도입은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가 생기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관악 위주의 제주음악은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가 생기면서 현악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1981년 음악교육과가 1987년 음악학과로 변경되면서 현악 전공자들의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제주대학교 음악학과가 현악 전공자들의 재원이 되었다면, 제주 현악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제주실내악과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실내악은 제주 최초의 현악실내악단으로 제주에 현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했으며,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로 바뀐 지금까지도 많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써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제주시립교향악단은 관악과 현악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는 많은 연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하면 아직도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제주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현악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제주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더 많은 자료가 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 많은 후원자들의 재정적 후원도 절실하다. 음악인들의 열정만으로는 많은 연주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좋은 연주가 나타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제주음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음악인들이 마음껏 연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우선 주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껏 제주음악을 이끌어온 단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현악과 더 나아가서 제주음악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학위논문

김상미,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논문, 2003  
이선문, 「제주도 관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 1984  
이영만, 「제주 음악문화의 발전에 관한 고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논문, 1999

### 2. 단행본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약편), 두리미디어, 2006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삶과 문화』, 2002. 6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삶과 문화』, 2003. 9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삶과 문화』, 2006. 12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현황』, 2003

### 3. 보고서 및 자료집

제네스체임버오케스트라 홍보자료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지, 1982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홍보자료  
제주주니어신포니에타 홍보자료  
중앙일보, 1979. 3. 10  
한국일보, 1996년 1월 10일 수요일자 (제 14806호)

### 4. 인터넷 사이트

아동문학평론 <http://cafe.daum.net/adongmh/1Qss/144>

제주도립예술단 홈페이지 <http://www.artjeju.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caf.or.kr>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www.jejuphil.com>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www.jejuyouth.com>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5/200605100030.html>

## 5. 인터뷰

고봉식 (현, 제주국제관악제 상임고문)

김인규 (현,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문경호 (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고문)

이상철 (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고문)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Historical Change of String Music in Jeju

by **Kim, Tae Guen**

Major in Violin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Prof. **Kim, In Kyu**

String music history of Jeju has very short history due to inferior geographical and society condition. From this, it is a historical fact that there are shortage of informations and subjects of investigation. Also, although string music of Jeju has brought a lot of development within a short time, there are not enough informations of thesis or musical and also literature material based on string music history in music field of Jeju. This thesis is written to arrange and summarize string musical history of Jeju through looking at development and historical changes. It also looked through Jeju Chamber Orchestra, Jeju Philharmonic Orchestra and Jeju Youth Orchestra with Cheju National University as the central figure.

Development of western music of Jeju started with wind music. During Japanese imperialism, brass music activity was the center of music such as elementary brass band activity. One of the most active band was Aewol Elementary School Brass Band. A Men of ability such as Kang Gae Don and Kim Gook Bae took activity part through conducting brass band and marching band during this time. After Korean War,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Jeju Branch has been organized and like Tamla Choir, a civilian music actions have become revitalized. In 1970, Korean Brass Band Leader

Association, Jeju Branch has made a new start. As a result, brass music field has been expanded and it was time for choir and church music activity to become vigorous.

Traditionally, Jeju, which has long roots of brass music, used to be barren land for string music. It is not an overstatement when we say development of Jeju string started since Cheju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Music Department. Professor. Kim In Kyu, newly appointed in the Music department as a specialist of string, educated strings to non-specialists with the passion. In 1984, Jeju chamber Orchestra was established which was purely an art organization of civilians. This was the first Jeju Chamber Orchestra. It was the first big step for the development of string music where there was total nonexistence of string musical environment. In 1987, Jeju Philharmonic Orchestra has been established by Prof. Lee Sun Moon (Former string professor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ecease in 1997). Establishment of Jeju Philharmonic Orchestra was another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Jeju string music. In 1989, Jeju Youth Orchestra has been established by Prof. Jang Hyong young. This orchestra's activity was another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n Jeju string music. If 1980's brought development in string music playing activity of adult players from Jeju Chamber Orchestra and Jeju Philharmonic Orchestra along the establishment of Music Department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0's was a time to support an opportunity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ring music playing activity. Another musical environmental changes occurred in 1990's. In 1994, Department of Applied Music has been established in Jeju Halla College and Department of Art Music has been founded in Cheju Tourism College in 1996. It was an opportunity to produce many distinguished string players due to the foundation of Speciality in String from Cheju Halla College and Cheju Tourism College. After the year 2000, many elementary schools started to educate violin and cello to the youngsters as an after school program which



runs by Office of Education. This was the beginning point of accomplishing popularization of string players. Through the after school program, it became possible to educate youngsters as future specialist and also to give them dilettante life or cultural activity.

Until now, string music of Jeju has made a lot of progress and there are many performing organizations activating but compare to other provinces, surely we are still in an inferior situation. However, for the development of Jeju string music, this kind of study should get performed more enthusiastically and more informations publishing will be needed, too.

This thesis researches history of Jeju string music through interviews of senior musicians of Jeju and diversity informations. It lightens up the history of Jeju Chamber Orchestra, Jeju Philharmonic Orchestra, Jeju Youth Orchestra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I'm sincerely Hoping this thesis would provide help and become bases of development in Jeju string music in the future.



